

BBS불교방송 공영미디어랩 포함 방송위, '방송광고 지원고시'

불교방송이 공영미디어랩에 최종적으로 편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5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개제했다. 이에 따르면 따로 분리됐던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CBS, 평화방송, 극동방송과 함께 공영 미디어랩에 최종 편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교·원음방송 등 종교방송사들이 자사의 공영적 성격을 감안해 KOBACO에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왔다"며 "이런 이해관계자 의견과 방송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 같이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랩 편입은 가시밭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6일 행정예고를 통해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을 SBS가 추진하는 민영미디어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대해 불교방송과 불교계는 종교평화 미디어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불교방송은 수 차례 결건 성명서를 통해 "종교 프로그램이 편성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방송은 사실상 공영방송"이라며 "성격을 감안해 공영미디어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등 불교계 단체들 역시 불교방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급선화된 것은 이런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정된 고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까지는 현행 결합판매 구조에 따라 광고판매가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풍경소리' 철거 전면 백지화돼

종교선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지하철 문화이론 '풍경소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

풍경소리는 "서울시가 지하철의 모든 부착물을 제거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수정 계획은 양 지하철공사에 전달됐다"고 9월 3일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철거 반대 청원을 한지 11일만의 일이다.

풍경소리는 "서울시의 변화 방침은 철거 반대 청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하철의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지역공동체 복원이 불교의 미래”

윤남진 소장, 포교연찬회서 '사찰 공동체 참여'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도시마을공동체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천명한 것이다. 불교계 포교 역시 이런 지역공동체 구성과 발전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9월 6일 열린 제49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은 세계적 추세"라며 "불교와 사찰이 지역공동체 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포교 중심을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먼저, 지역공동체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회담 이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의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도심 및 농촌지역 사찰의 존재방식을 재구성하고 지역에서 사찰의 역할에 근거한 포교 개념을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는 없고 전국구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윤 소장은 "불교계의 지역 프로그램은 장학사업·사회복지적 돌봄사업·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시혜적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며 "연구를 진행하면 만난 서울시 공무원과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불교와 사찰이 지역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시정으로 가져간다. 지

'공동체 구성' 포교에 중점 사찰 지역화 전략 세워야 관계·수행으로 접근도

연구는 없고 전국구만 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지역화가 세계적 트렌트가 된 요즘, 불교는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갈등 해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함께 어울리고·논의하고·나누며·마음의 평화를 돌본다"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는 관계와 수행으로 지역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역 사회의 이해와 소통,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관계의 범주에 두고, 수행의 범주에는 심성의 돌봄을 배치해야 한다"며 "평생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마곡사 기획위원장도 "한국불교의 기복신앙 과잉과 사회적 관심 빈곤은 사회와 불교 사이의 상호소외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역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사찰이 스스로 성장해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연찬회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진관스님이 '포교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했으며 동국대 교수 영석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21세기 새로운 포교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원전 문제, 은폐·축소 되고 있다”

불교생명윤리협, 우원식 국회의원 초청 탈원전 좌담회

“수명연장을 목표로 하는 고리 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등을 위해 상당 부분의 자료들이 조작되었습니



건전성 평가에 대비한 N 감시시편 등이 조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 그리는 고리 원자력이 우리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1%지만 폐쇄 비용 등 사후의 문제를 감안해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사실 원자력 폐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 그는 "폐기 매뉴얼조차 없는 시점에서 고리 1호기가 폐쇄된다면 그 대책이 막막하다. 또한 폐쇄 비용이 공개되면 원자력에 대한 반대 분위기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에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개신교 목사, 동화사서 '낙서·방뇨'

“성령 이끄는 대로...” 황당 답변 대구불교계 공분, 목사 결국 구속

개신교의 한 목사가 대구 동화사에서 소변을 누고 땀에 낙서를 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동화사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5시 울산에 사는 목사 성 모 씨(43)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법화경)과 (선문질요) 등 불교경전을 훼손하고 대웅전 뒤 산신각에서 땀에 낙서를 했다.

성 목사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사전에 들어가 청수 그릇과 향로에 소변을 봤다. 목사의 이 같은 황당한 행각은 사찰 CCTV에 촬영됐으며 동화사 측은 대구 동부경찰서에 신고해 성 씨는 10여 일 후 경찰에 검거됐다.

성 씨는 자신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밝히고 "불교경전에 헛된 것이 적혀 있어 훼손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성 씨는 2005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최근까지 목회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9월 6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성 씨가 사건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



대구지역 불자들은 9월 6일 대구지방법원을 항의방문하고 동화사 '땀방기' 등 연어는 훼손 사건을 방치한 정부를 규탄했다.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화사 총무국장 원광 스님(해탈 대척위원장)과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 태고종 정통사 주지 보선 스님, 대한불교청년회원, 대구시불교신도회 등 100여 명이 9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훼손행위 규탄 범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이명박 정부 들어 종교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

다"며 정부의 종교관향적 행태를 규탄했다. 대구 불교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최근들어 기독교계의 '땀방기' 등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연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동화사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사찰 경내에 들어와 땀방기를 벌인 장면이 담긴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동화사가 추진중인 불교예마공원을 종교관향정책의 일환으로 폄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세계를 바추는 경쟁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로 가는 동아줄을 잡으세요”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2014)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2012)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와 모든 학과 2+2 복수학위 제도 시행 (양교에 공동 개설된 학과 대상)

창조캠퍼스 선정 (고용노동부, 2012) · 그린캠퍼스 선정 (환경부, 2011)

IPTV 기반 글로벌 문화 관광 방송기반 구축사업 선정 (지식경제부, 2010-2015)

VISION 2020 오고 싶은 대학 자랑스런 대학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1차 원서접수: 2012. 9. 5(수) ~ 11(화) / 수시2차 원서접수: 2012.11.12(월) ~ 15(목)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web.dongguk.ac.kr